

핵심주제

- 극동 투자 매력 2018동방경제포럼 전시회에서 발표
- 동방경제포럼에서 북극 항로 활용전망 참가자들에게 발표
- 극동에 30개 이상 공항 건설 및 보수 예정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8월 17일, Interfax

극동 투자 매력 2018동방경제포럼 전시회에서 발표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들의 주 목표는 극동의 잠재력을 홍보하고 지역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2018동방경제포럼에 여러가지 형태의 전시회가 진행된다.

'극동에서 사업하세요' 전시회에서는 포럼 손님들과 참가자들에게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같은 지역발전정책들과 발전기관 활동, 투자 기회 및 현재 진행중이고 계획된 투자프로젝트들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극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시회에서는 국제협력을 포함한 극동연방관구 투자 잠재력과 러시아 행정기관들의 역할을 소개한다.

<http://www.interfax.ru/events/news/625619>

2018년 8월 17일, TASS

필리핀 사절단 동방경제포럼 참석

소레타 주러 필리핀 대사에 의하면 필리핀 국방부 장관, 육군 사령관들, 필리핀 국군 국방기술 담당 기관장이 사절단에 포함된다.

<http://tass.ru/ekonomika/5466584>

2018년 8월 17일, Primorsky.ru

연해주, 동방경제포럼에서 약 30개 투자프로젝트 발표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투자프로젝트 발표 시간에 광산업, 식품산업, 야금업, 관광 등 분야의 29개 프로젝트들이 발표될 전망이다. 해당 프로젝트들의 총 투자규모는 약 2750억 루블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737억 루블 규모의 '프리모리에' 통합휴양단지이다. 휴양지의 투자대상 시설들은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3, 4, 5성급 호텔들과 쇼핑센터, 전시 시설, 오락시설, 워터파크, 요트클럽, 스키슬로프, 해수욕장, 레크리에이션 시설, 레스토랑, 카페로 구성된다.

<http://www.primorsky.ru/news/149060>

2018년 8월 16일, Komsomolskaya Pravda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참가자들에게 북극항로 활용전망 발표

러시아가 북극해역에 보유한 주요 항로인 북극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물류 잠재력에 대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마에르스크사 관계자들이 발표할 전망이다. 마에르스크사 선박이 올해 9월 북극항로를 항해할 계획이다. 벤타 마에르스크호는 러시아 기업들이 극동에서 생산한 냉동생선을 실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항해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따라 처음으로 운항하는 프로젝트이다. 항해 종료 후 항해 안전성 평가와 북극항로 물류 수요를 평가한다.

<https://www.kp.ru/daily/26869/3911793>

2018년 8월 15일, TASS

모스크바 크레믈린 박물관의 80개 이상 전시품 제4회 동방경제포럼 전시회에 출품

'러시아 지도, 역사의 이정표' 전시회는 아르세니에프 연해주 박물관에 열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개통 기념으로 러시아 황실에 바치는 열차 모형이 들어간 파베르주의 달걀 및 성 예카테리나 모스크바 기숙학교 학생들이 1872년에 만든 러시아제국 지도 등 유명한 전시품들이 찾아온다.

전시회는 아르세니에프 연해주 박물관과 모스크바 크레믈린 박물관사이 올해 3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협력계약에 따른 첫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http://tass.ru/kultura/5458650>

2018년 8월 13일, Gazeta.ru

동방경제포럼에 미국 대학생 사절단 참가

미국 사절단에 젊은 사업가, 금융전문가, IT기술자, 정치학자, 사회활동가, 국제관계전문가 등 아이비리그 유명 대학 학생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방경제포럼으로 미국 젊은 리더들을 초청할것을 민간외교분야 미국 민간단체인 러미 협력 이니시어티브(Russian-American Cooperation Initiative)가 제안하였다. 로스콩그레스 재단, 주미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외교부는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서 미국 사절단과 러시아 젊은이들의 만남이 진행될 전망이다.

<https://www.gazeta.ru/gazeta/adv/11894407.shtml>

극동뉴스

2018년 8월 13일, 극동 비즈니스 신문

인도 에너지 기업, Tata Power가 '캄차카' 선도개발구역 입주신청

현재 Tata Power는 캄차카주의 크루트로콥스코예 석탄 필드의 지질탐사 계획을 준비중

이다. 탐사 시작은 2018년 가을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총 투자규모는 약 6억 달러이다.

<http://biznes-gazeta.ru/?id=news.view&obj=375c755f3e92fff6353146439404e797>

2018년 8월 14일, TASS

2억 4000만 루블 규모의 축돈단지 하바롭스크주에 건설

축돈단지는 총 12개 동, 창고, 직원용 건물, 변전소, 차고로 구성된다. 축돈단지는 돼지를 1만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규모이다. 연간 생산되는 돼지고기 양은 최대 945톤이다. 하바롭스크 주 외에 연해주, 아무르주로도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3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http://tass.ru/ekonomika/5454130>

2018년 8월 14일, Izvestiya

극동에 30개 이상 공항 건설 및 보수 예정

극동 공항들은 2025년까지의 건설 및 보수 총괄사업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정보는 디트리흐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장관에 의하면 이를 통해 모스크바를 거치지 않는 지역간 항공노선을 확대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러시아 2024년 국가 목표 및 발전 전략과제' 대통령령에 2024년에는 러시아 국내 항공노선의 절반 이상은 모스크바 경유 없는 직항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https://iz.ru/777987/2018-08-14/mintrans-planiruet-rekonstruirovat-i-postroit-bolee-30-aeroportov-dfo>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www.roscongress.org